

# 다니엘서 - 백칠십칠번

14만 4천의 인침: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적 상징에서 얻은 통찰

Jeff Pippenger

2024-04-07

다니엘은 10장에서 세 번 손길을 받았는데, 처음과 마지막은 가브리엘에게서였고 가운데 손길은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었다. 다니엘이 자신의 부패를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그 가운데 손길에서였으니, 진리의 중간 이정표가 반역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다니엘을 만진 이는 미가엘이었는데, 그분이 스물한 날이 끝날 때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길거리에 죽은 채 누워 있는 상징적 삼 일 반의 끝에, 한 음성이 그 두 증인을 부활시킨다. 부활시키는 것은 곧 천사장의 음성이다. 다니엘 10장에서 스물두째 날에 미가엘이 강림하는 것은 2023년에 두 증인이 부활하는 일과 일치한다. 두 증인이 길거리에 죽어 있는 동안, 에스겔은 그들의 흩어진 뼈들을 보여 받았고, 골짜기에 있는 그 죽은 마른 뼈들이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으며, 에스겔이 대답한 전부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였다.

그 후 에스겔은 그 뼈들에게 대하여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가 그대로 행하였을 때 그것들은 서로 맞추어져 형체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생명은 없었다. 에스겔의 첫 번째 예언은 그 뼈들을 함께 모으는 일이었으나, 그 뼈들이 군대로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예언이 필요하였다. 에스겔의 두 번째 예언은 그 뼈들에게 생명을 가져온 사방의 바람으로 표상된 셋째 화의 예언이었다. 첫째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나, 그 후 범죄하여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죽음을 전하였다. 에스겔의 죽은 뼈들의 부활은 아담이 그의 완전한 상태로 창조된 일과 병행을 이루는데,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날 때 영화된 몸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재림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그들이 그때 바라보는 형상으로 변화되는, 다니엘이 본 원인적 'marah' 환상과 상응한다. 줄에 줄을 더하듯, 인침의 과정은 예언적 증언에 의해 매우 세심하게 전개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들어가" 두 증인 속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어서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본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을 보았다."

먼저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갔고, 그들이 일어서자, 전에 그들의 죽음을 두고 기뻐하던 원수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이어 한 음성이 그들을 올라오라고 부르고, 그들의 원수들은 그 일을 목격한다. 에스겔의 경우, 그들은 먼저 골짜기에서 흩어지고 죽은 자들로 드러나고, 이어 그들을 모으는 예언이 선포되며, 두 번째 예언으로 그들이 강한 군대로 일어난다. 다니엘의 경우, 그는 먼저 두 부류를 구분하는 큰 환상을 보고, 이어 세 번 만짐을 받는다.

처음으로 그가 만져졌을 때 그는 기력이 없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며 얼굴은 땅을 향하고 있었다. 잠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는 말소리를 들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5:28.

그러자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손과 무릎을 땅에 대게 하였고, 이어 그에게 일어서라고 명했다. 다니엘은 떨고 있었지만 그대로 일어섰다. 그는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으나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에스겔도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고, 그로 인해 비슷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던 궁창 위에는 사파이어 같은 보석처럼 보이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고, 그 보좌의 모양 위, 그 위에는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이 있었다. 나는 그의 허리로 보이는 곳에서부터 위로는 그 속 사방이 불처럼 보이는 호박빛 같은 광채를 보았고, 그의 허리로 보이는 곳에서부터 아래로도 마치 불의 모양 같았으며, 그 둘레에는 광채가 둘러 있었다.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과 같이, 그 둘레의 밝음이 그렇게 보였다. 이는 주의 영광의 형상 같은 모습이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겠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내 발로 서게 하셨으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에스겔 1:26-2:2.

그 환상은 에스겔과 다니엘 두 사람을 티끌처럼 겸비하게 하여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했다. 그런 상태에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듣도록 둘 다 일으켜 세움을 받아 서게 되었으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신성의 결합은 성령에 의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신성을 인간 안으로 전달한다. 이 진리를 인정해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11장에서 제공하는 예언적 역사의 엄중함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11장에 제시된 그 예언 역사는 거룩한 기쁨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이다.

에스겔은 곧바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에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지시를 받지만,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므로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이 처음부터 에스겔에게 알려진다. 에스겔의 경험은 이사야서 6장의 경험과 같으며, 그러므로 두 증인의 증언에 따라 하나님이 죽음을 상징하는 잠에서 다니엘을 깨우실 때, 다니엘은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패역한 족속을 위한 메시지를 받지만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뒤 다니엘은 두 번째로 만짐을 받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신다. 이는 그분이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만지셨던 것과 같다. 그러자 다니엘은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기력이 없었고 호흡도 없었다. 에스겔에 따르면, 호흡은 에스겔의 두 번째 예언이었던 "네 바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온다. 에스겔의 네 바람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의 세 번째 만지심과 상응하는데, 바로 그때 뼈들 안에 호흡이 들어가 그들이 강한 군대로 일어난다. 다니엘은 세 번째 만지심에서 힘을 얻는다.

2020년 7월 18일에 하나님의 말세 백성들은 흩어져 비유에서 말하는 지체하는 때로 들어갔다. 인침의 역사는 1844년 10월 22일부터 1863년의 반역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속에서 예시되었다. 거기서 제시된 역사선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일요일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겹쳐지지만, 또한 2020년 7월 18일부터 일요일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도 겹쳐진다. 이 예언적 현상은 상징들이 하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 의미는 적용되는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우리가 세 천사 중 어느 한 천사의 도래와 사역을 고려하더라도, 그것들은 동일한 사건의 순서를 따른다. 그들과 관련된 예언의 봉인이 풀리는 시점에 그들이 도래한다. 그 예언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곧 도래, 권능 부여, 그리고 끝에서의 닫힌 문이다. 역사 속에는 다른 이정표들도 있지만, 세 천사 중 어느 천사의 도래와 관련된 세 가지 시험의 이정표 가운데 첫 번째 이정표는 예언의 봉인이 풀리는 지점이다. 봉인이 풀린 메시지는 확증을 통해 권능을 부여받고, 그 확증과 권능 부여가 그 시대의 남녀를 시험한다. 그 역사의 결말은 리트머스 시험을 마련하여, 세 번째 시험에 서 있는 이들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를 드러낸다.

2001년 9월 11일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역사 속에서 세 천사를 식별할 수 있다. 첫째는 2001년 9월 11일에 도착했고, 둘째는 2020년 7월 18일에 도착했으며, 셋째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시금석)에서 도착한다. 1844년 10월 22일은 2001년 9월 11일과 상응하고, 1856년은 2020년 7월 18일과 상응하며, 1863년은 일요일 법령과 상응한다. 따라서 1844년 10월 22일부터 1863년에 이르는 시기는 2020년 7월 18일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시기와의 상응하는데, 7월 18일이 봉인 역사에서 둘째 천사가 도착한 때였기 때문이다. 이후의 역사도 여전히 각 천사의 단순한 이정표로 올바르게 식별된다.

2020년 7월 18일에, 그 세대를 시험하기 위한 한 진리가 봉해짐에서 풀려났다. 그 역사의 두 번째 단계는 두 증인이 부활하는 때이다. 그때 그들은 이제 드러난 빛, 곧 지금 진행 중인 그 빛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하여 시험을 받는다. 그 다음 일요일 법(리트머스 시험)에서 누가 슬기로운 처녀이며 누가 어리석은 처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역사를 단일한 한 천사의 구조로만 보고, 1844년 10월 22일부터 1863년의 반역까지의 역사를 2020년 7월 18일부터 일요일 법에 이르는 역사 위에 포개어 놓을 때, 우리는 1849년에 화잇 자매가 주께서 당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다시 그의 손을 펴셨다고 밝힌 것을 발견한다.

1844년 10월 22일부터 1849년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져 있었다. 1850년에 그들은 하박국의 두 도표 중 둘째 것을 제작했다. 1851년 1월에는 Review에서 그 새 도표를 광고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져 있었고, 셋째 천사가 빛과 함께 왔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하셨고, 1842년에 하신 것처럼 그들이 선포해야 할 기별의 시각적 표현을 제공하셨다. 1844년 10월 22일에 임한 빛은 지식의 증가였고, 그것은 그분의 인도 아래 계속 발전해 나갔으며, 1856년에 그 빛의 정점이 소개되었다. 그 빛은 '일곱 때'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윌리엄 밀러가 가장 먼저 인식한 빛이었고,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된 예언들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었다.

1856년에 "일곱 때"의 빛은 첫째 천사의 사자였던 밀러에게 주어진 지식 증가의 종결이었을 뿐 아니라, 1844년 10월 22일에 주어진 셋째 천사의 마지막 빛이기도 했다. 1856년에 그 빛을 거절한 것은 1798년에 봉인이 풀려 드러난 지식의 증가를 거절한 것이자, 1844년 10월 22일에 봉인이 풀려 드러난 지식의 증가 또한 거절한 것이었으며, 그때 그곳에서 빌라델비아의 경험에서 라오디게아의 경험으로 옮겨간 이들에 의해

그렇게 거절되었다. 1863년의 반역은 세 번째이자 시금석이었는데, 이는 “일곱 때”의 빛을 제거한 위조 도표에 의해 드러났다.

1844년 4월 19일의 첫 실망은 하나님께서 1843년 개척자 도표의 일부 수치에 있는 오류를 손으로 덮어 가리심으로 인해 첫째 천사의 필라델피아 운동에 임했다. 2020년 7월 18일의 첫 실망은 사람들이 1844년 10월 22일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셨다는 사실을 무시함으로써 셋째 천사의 라오디게아 운동에 임했다. 2020년 7월 18일에는 이 처녀들의 세대를 시험할 기별이 봉인이 풀렸다. 1850년에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는 2023년에 두 번째로 손을 펴셔서 2020년 7월 18일 이후로 거리에서 죽어 있던 에스겔의 마른 뼈들을 모으셨다. 1851년이 되자 그 기별을 시각화한 새로운 도표가 있었는데, 이는 하박국 2장의 예언의 성취였으며, 이로써 2023년 이후 주께서 하박국의 두 표판으로 예표된 새로운 살아 있는 기치를 들어 올리실 것임이 확인되었다.

하박국의 두 판은 십계명의 두 돌판과 또한 오순절 절기의 두 요제 떡으로 예표되었다. 십사만 사천은 첫 열매의 제물로 규정되며, 그들은 말라기에서 ‘옛날과 옛적처럼’ 드러지는 제물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온 세상이 보게 되도록 요제로 들어 올려진다.

십사만 사천의 깨어남은 함께 모이는 것으로 시작되며, 그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에스겔의 죽은 뼈들이 여전히 죽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모이게 되기 때문이다. 주께서 남은 자를 모으시기 위해 두 번째로 손을 펼칠 때, 에스겔은 뼈들을 모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인간적 도구를 대표한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요한, 그리고 에스겔은 모두 죽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간적 요소를 지목한다.

뼈들이 한데 모인 후에 주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기 직전에 인봉이 풀리는 지식의 증가를 드러내시며, 그 지식은 “마지막 날들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 중 그 부분”으로 표상된다. 에스겔의 두 번째 예언에서 인봉이 풀리는 빛은 셋째 화인데, 그것은 뼈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과적으로 그것들로 하여금 큰 군대로 일어서게 하는 동풍의 기별이다. 다니엘에게 계시되는 빛은 11장에서 북방 왕으로 표상된 빛이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함께 “마지막 날들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 중 그 부분,” 곧 (동방) 바람과 (북방) 왕의 기별을 나타낸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큰 분노로 나아가 파괴하고, 많은 자들을 철저히 없애려 할 것이다. 다니엘 11:44.

1856년에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인치는 일을 마치고자 뜻하셨으나, 그들은 반역하였다. 그들을 라오디게아적 상태에서 이끌어 내기 위하여 그분께서 사용하고자 의도하신 기별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였다. 주께서 2023년 7월에 당신의 백성을 모으기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다시 한 번 그들에게 “일곱 때”의 기별을 제시하셨고, 다른 것들 가운데서도 예표의 대속죄일에 희년의 나팔이 울려야 하며, 또한 바로 그때 일곱째 나팔도 울려야 한다는 것을 밝히셨다. 희년의 나팔은 “일곱 때”의 상징이며,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이다. 다니엘 10장에서 미가엘이 내려오셨을 때, 다니엘은 레위기 26장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의 경험을 얻는 자들과, 다니엘 2장의 예언적 비밀을 깨닫고자 구하는

자들을 대표하였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아진 자들, 그리고 이어서 동방과 북방의 기별을 선포하도록 강권하게 되어 자기 발로 서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임박한 일요일 법이 이르기까지 그 기별을 선포한다. 그 군대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은 예언의 매우 상세한 주제이며, 신성이 인성과 결합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성취와 더불어 다니엘 11장 11절에 나타난 역사에서 시작되었다. 다니엘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난 역사는 40절의 감추어진 역사를 채우는데, 곧 "말일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의 그 부분"이다.

우리가 기원전 200년 파니움 전투에서 처음 성취된 다니엘 11장 13절부터 15절을 고찰하기 시작함에 있어, 이 구절들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파니움은 세 차례의 대리전 가운데 세 번째이다. 첫 번째 전투는 1989년에 교황권과 그 대리 군대인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다음 전투는 11절과 12절로 표상되며, 라피아 전투에 의해 성취되었는데, 남방의 왕(러시아)이 우크라이나에서 북방의 왕과 그의 대리 군대를 패배시킬 것이다. 세 번째 전투는 첫 번째와 같이, 교황권(북방의 왕)이 그 대리 군대(미국)와 함께 공산주의(국제연합)를 이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파니움 전투인 이 세 번째 대리전은 또한 제3차 세계대전을 개시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그룹들의 날개 아래 있는 손이 바퀴들의 복잡한 움직임에 이끌렸듯이, 인간사의 복잡한 전개도 신적 통제 아래 있다. 열국의 다툼과 소란 가운데서도,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이는 여전히 땅의 일을 주관하신다.

차례로 자기들에게 할당된 때와 자리를 차지하였던 나라들의 역사는, 그들 자신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무의식중에 하나의 진리를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말해 준다. 오늘날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한 자리를 정해 주셨다.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은 실수가 없으신 분의 손에 들린 다림줄에 의해 측량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크신 스스로 있는 자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정하신 역사는, 예언의 사슬에서 고리와 고리를 서로 이어 과거의 영원으로부터 미래의 영원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시대의 행렬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장차 올 때에 무엇이 기대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 예언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한 모든 것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페이지 위에 그대로 나타났으며, 아직 오지 아니한 모든 것 역시 그 순서대로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모든 지상 권세의 최후의 전복은 진리의 말씀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게 하나님의 판결이 선고될 때 선포된 예언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주어졌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두건을 벗기고 면류관을 벗겨라. ...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라. 내가 뒤엎고, 뒤엎고, 또 뒤엎으리니, 그 권리가 있는 이가 오기까지 그것은 다시 없으리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에스겔 21:26, 27.

이스라엘에게서 제거된 면류관은 바벨론, 메대-바사, 헬라, 로마의 왕국들로 차례차례 넘어갔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마땅히 그 권리를 가진 이가 올 때까지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그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오늘날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동요하고 있다. 우리 눈앞에서 그분의 오심에 앞서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구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4:6, 7.”

“현재는 살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의 때이다. 통치자들과 정치가들, 신임과 권위를 지닌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계층의 사려 깊은 남녀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그들은 나라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되고 불안한 관계들을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세상적 요소를 사로잡고 있는 격렬한 긴박감을 주목하며, 크고도 결정적인 어떤 일이 곧 일어나려 하고 있음을—곧 세상이 엄청난 위기의 문턱에 서 있음을—깨닫고 있다.

“천사들은 지금 분쟁의 바람을 불들고 있어, 세상이 다가오는 멸망에 대하여 경고를 받을 때까지 그것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폭풍은 점점 모여들어 땅 위에 터질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실 때에는, 어떤 필치로도 묘사할 수 없는 그러한 분쟁의 광경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 오직 성경만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우리 세계의 역사에서의 위대한 최후의 장면들이 계시되어 있다. 그 사건들은 이미 그 그림자를 앞서 드리우고 있으며, 그 다가오는 소리가 땅을 떨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무너지게 한다.

“보라,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고, 그것을 뒤엎으시며, 그 거민들을 사방으로 흩으시며....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황폐하게 되었도다.... 소고의 즐거움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끝나며, 수금의 기쁨이 그치도다.” 이사야 24:1-18.

‘슬프다 그 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웠고, 전능자에게서 오는 멸망같이 임하리라.... 씨가 그들의 흙덩이 아래에서 썩었고, 곡식 창고들은 황폐하였으며, 곳간들은 무너졌으니, 곡식이 시들었음이라. 짐승들이 어찌 그리 신음하는가! 소 떼들이 초장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참으로 양 떼들도 황폐하게 되었도다.’ ‘포도나무는 말랐고, 무화과나무는 시들었으며,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까지, 들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는 인생들에게서 기쁨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라.’ 요엘 1:15-18, 12.

‘내 마음 깊은 곳이 아프다; ... 내 영혼아,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으므로 나는 잠잠할 수 없다. 파멸 위에 파멸이라 외친다; 온 땅이 유린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땅을 보니, 보라,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하늘을 보니 빛이 없더라.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그것들이 떨었고, 모든 언덕들이 가볍게 흔들렸더라.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고, 하늘의 모든 새들은 날아가 버렸더라. 내가 보니, 보라, 비옥한 곳은 광야가 되었고, 그 모든 성읍들이 무너졌더라.’ 예레미야 4:19, 20, 23-26.

“슬프다! 그 날은 크므로 그와 같은 것이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환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30:7. 교육, 178-181.